

AUTHOR 홍지훈

TITLE 마르틴루터 II

오직 신앙, 오직 성경, 오직 은혜

IN 교육목회

vol. 35 (가을, 2008): 66-72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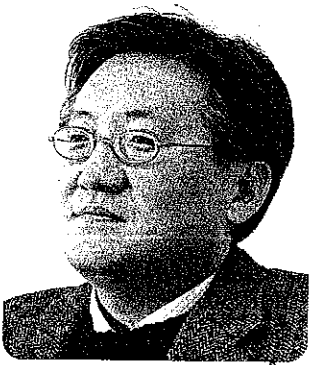
오직 신앙, 오직 성경, 오직 은혜

1. 들어가는 말: 왜 “오직”(Sola)인가?

1529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칼 5세는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 소재한 슈파이어(Speyer)에 제국회의를 소집하였다. 소집 이유는 루터파의 확산을 막고자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의 결정을 재확인 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보름스에서는 루터를 정죄하고, 그 누구도 루터를 보호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칙령이 제후들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루터파가 전 독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독일 군주들에게 보름스의 칙령을 준수하라고 재차 명령하였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대개의 경우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던 시황이라도 하던 제후들 가운데 루터파를 지지하던 제후들이 황제에게 강력하게 반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14개 도시의 힘을 모으고 항의 문서를 만들어 이에 서명하였다. 그래서 이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항의자>라고 불렀다. 항의자라는 말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改新敎)라고 번역하여 부르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말은 바로 <항의>(Protest)에서 비롯되었다. 교회사 사전에 찾아보면 <항의하다>로 번역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증언하다” 또는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는 황제의 종교적 간섭에 항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에 <후기 중세기 모호해진 신앙고백에 항의하고, 보다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홍지훈·교수
호남신학대학교 종교개혁사

이다.

프로테스탄트는 무엇을 그토록 분명하게 알고 싶었고 또 증언하기 원했을까? 오늘날 여기저기서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현상들을 볼 때, 이 시대 모호해진 진리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그들이 밝히 알기 원했던 것만큼, 오늘날의 개신교 또한 같은 것을 원해야 하고 또 그들의 전통을 이어 받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의 구별되는 전통이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보통 <오직 신앙,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는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 가운데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들이다. 여기서 역발상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이런 세 가지 주요 주제가 종교개혁자들이 의하여 강조되었다는 것은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이 세 가지가 합당한 위치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중세 가톨릭교회는 <신앙>과 <성경>과 <은혜>에 대하여 오해 내지는 왜곡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이라는 말이 그 세 가지 앞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신앙이다. 신앙이 아닌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다. 그 신앙의 거울은 오직 성경이다. 성경을 근원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미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총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이런 종류의 왜곡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것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릇된 신앙과 성경관과 은혜가 중세 후기 사람들의 신앙에 자리 잡고, 마치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루터

가 <오직>이라는 말을 써서 올바른 신앙을 그토록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어야 했는지를 신학적으로 밝히는 일이다.

2. 신앙과 루터

<나는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갑작스런 느낌이 루터로 하여금 수도사가 되게 만들었다. 에르푸르트 대학 시절 고향에 다녀올 때 슈트테른하임에서 갑작스레 만난 뇌우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였던 것이다. 그때 루터는 광부들의 수호성인인 <성 안나>에게 남작 었드려서 기도하였다. <성 안나여,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¹⁾ 지금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루터의 마음속에 <나는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안됐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고, 이것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도대체 구원을 받기위한 준비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수도사가 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더 좋은 조건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루터의 시대는 오늘날과는 달리 <구원의식>이 상당히 강한 시대였다. 가톨릭의 교리에 따라 죽은 영혼은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시험을 받아 <천국>으로 가기도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들은 터키족의 침입과 흑사병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지옥>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루터신학의 <칭의론>은 단순한 이론적인 사색을 통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이었다. 어떻게 인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가톨릭교회는 교회가 제정한 성례전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7성례전을 <구원에 이르는 통로>(Ordo salutis)라고 불렀다. 7성례는 영세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서품성사, 혼배성사, 종부성사이다. 개신교에서 쓰는 말로 풀어보면, 유아세례, 입교, 회개, 성

1) 성 안나는 정경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친으로 다른 문서에 알려져 있다.



청이 발행하는 <면죄부>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사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중세였다. 그러므로 사제 없이는 성례전도 없고 성례전 없이는 교회도 없고 신앙도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가 중세를 지배하였다. 그래서 후기 중세는 반성직자 중심주의(Anticlericalism)가 등장하여 사제 중심의 신앙관에 저항하게 되었다.

사제중심, 성례전중심, 면죄부

찬, 목사임직, 혼인예식, 장례예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신교도 똑같은 예식을 거행하지만,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통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더구나 일곱 가지를 모두 성례전(Sacrament)이라고 하지 않고,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한다.

가톨릭교회의 7 성례 중에 신앙문제에 가장 혼란을 준 것이 <고해성사>이다. 고해성사는 속죄소에서 고해사제와 신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고해사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의 죄는 용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가 된다. 사제가 하는 일이 <사면선언>이다.²⁾ 기록에 의하면 사제의 사면선언의 내용이 중세 후기로 오면서 변질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상하여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던 선언내용이 후에 후기에 와서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라고 변질되었던 것이다. <사제>가 내리는 사면선언이 교황

판매 등등을 낳은 중세 후기 신앙관은 <공로주의 신앙>이다. 공로주의 신앙이란 신앙의 외형적 조건에만 집착한 나머지 <신앙의 있고 없음이나 많고 적음을 교회가 제정한 양식에 따라서 점수화 하는 것>이라고 풀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사를 더 많이 드리면 더 드릴수록 그 공로가 쌓인다는 생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제들이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교황을 알현하고 로마에 있는 여러 성지에 가서 미사 드리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만 보아도 신앙의 뒤를림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후기 중세 그리스도인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수많은 성물과 유물 숭배의 현장들 그리고 폭증하는 양초와 묵주의 사용들은 결국 중세 교회의 신앙을 면죄부 판매라는 사건으로 얼룩지게 하고야 말았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나서 성서를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

2) 속죄소에 통회(contritio cordis)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사제 앞에서 입으로 죄를 고백(confessio oris)하면 고해사제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기 전에 보속(satisfactio operis)의 조건을 요구한다. 이 세 단계가 완성되면 그는 죄를 용서받고 사면선언(absolutio)을 얻게 된다. (교육목회 34호를 참조하십시오)

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이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의 근거였다. 이 본문은 로마서 3장 18절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구원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 즉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대비되는 개념을 보면, <공로>에 반대한 <신앙>이고, <율법>에 반대한 <복음>이다.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루터는 자기보다 1500년 전 사람인 사도 바울과 교감한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대비는 <자신의 의>에 반대한 <하나님의 의>이다. 중세 가톨릭교회의 성례전 중심적인 구원관에서 나온 공로주의 신앙은 <자신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만으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루터는 이것을 <능동적 의>라고 표현했다. 그 반대의 개념은 <수동적 의>이다.³⁾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내가 능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요 낯선 의(Justitia aliena)이다. <낯설다>는 말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의이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말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Propter Christum) 그렇다는 것이다.⁴⁾

신앙이란 <내가 확고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자기 사랑>(Amor sui)을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Amor Dei)에로 나아간다.

3. 성경과 루터

루터를 종교개혁자가 되게 만든 것은 <성경>이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만든 근본적인 힘이었다. 루터가 중세 가톨릭의 공로주의 신앙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로마 방문이었다. 당시 모든 수도사들의 소망은 로마를 방문하고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을 알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루터는 어거스틴과 수도원의 대표로 다른 수도원들과 규율을 통합하는 안을 가지고 로마에 갔다. 그 역시 다른 수도사들처럼 벽간 가슴을 안고 갔지만, 교황과 교위성직자들이 세속화된 지 오래라는 확신만 가슴에 품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1509년 경 루터의 속마음을 드러낸 편지의 한 토막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호두의 알맹이를, 밀의 속 부분을, 빵의 골수를 탐구하는 신학으로 바꾸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자주 자신에게 속는다. 그렇다. 자기 판단에 속는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하신다.”⁵⁾

이 편지는 루터가 성경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아이제나흐(Eisenach)의 사제 요한네스 브라운에게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루터 자신이 성경연구를 통하여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만든 거대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루터는 로마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던 것이다.

1512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부터 대학에서 성경 강의를 시작하였다. 시편(1513-1515), 로마서(1515/1516), 갈라디아서(1516/1517), 히브리서(1517/1518)의 네 가지 성경을 강의하였다. 루터는 처음 시편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경이 지닌 능력은 성경

3) WA 39 I, 447, Die zwite Disputation gegen die Antinomer, 1538

4) WA 39 I, 83 Die Disputation de iustificacione, 1536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간주된다.”

5) WA Br I, Nr. 5, 40-46 (Briefwechsel 1509. 3. 17)

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성경과 성경의 능력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그 속뜻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성경 안으로 끌어들이는 뜻이다.⁶⁾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더 마음에 와 닿을 것 같다.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우리이지만, 정작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성경이 주체가 되어 읽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성경에게 들려버린다. 그리고 부끄러워한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루터는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 냈다. 과거에는 이런 성경읽기가 없었다. 루터는 1545년 세 번째로 시편의 다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시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아주 명확히 약속하고 있고, 또한 그의 왕국과 모든 기독교인들의 조건과 성격을 묘사해주고 있어서 죽히 작은 성서라고 불릴 만하네, 단지 이런 이유만으로도 시편은 존귀하게 사랑받는 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편 안에서는 전체 성서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아름답고 간단하게 이해되어져서 매우 좋은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⁷⁾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루터는 다음 성경 강요인 로마서에서 칭의의 개념을 확립하게 된다. 후기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하라>(Facera quod in se set)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루터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가 만일 인간적인 본성이 전체적으로 선을 알고

있고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해이다. ... 인간의 본성은 단지 무엇이 자신을 위하여 유익하며 영광스러운 것인지만 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⁸⁾

이를 잘 설명하는 루터의 유명한 예화 한 가지가 있다. 한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의 처방을 따르면 곧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루터는 묻는다. 이 환자는 건강한가? 아닌가? 루터는 이 환자는 건강한 동시에 아프다고 한다. 건강을 약속한 의사의 언약을 믿을 때 그는 건강하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반드시 치료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루터는 죄인과 의인의 관계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Promissio)과 의의 전가(Reputatio) 때문에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는 <죄인인 동시에 의롭다>(Simul peccator et iustus).⁹⁾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은 <희망 가운데에서(in spe)는 의인이고, 실제로는(in re)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뜻이다. 전적으로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죄인인 인간, 즉,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라는 루터 칭의론의 참 뜻을 이해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일순간에 느껴지는 일이기도하고, 한 평생을 살면서 계속 느껴야 하는 양면성이 있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 따라서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져들 이유가 없다. 구원이란 이미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보면 아직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터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라고 발한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사상을 정면으로 뒤엎는 발상이었다. 그리고 칭의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가고 있다고 설파한 점으로 보아서 루터의 칭의 속에는 성화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¹⁰⁾

6) WA 3, 397, 9ff (1차 시편 강의)

7) WA DB 10-1, 99, 23ff. (제 3차 시편 강의 서문, 1545) 번역문은 지원용 편 「루터선집 2권 루터와 구약(2)」, 컨콜디아 1983, p.30

8) WA 56, 355, 28ff. (로마서 강의)

9) WA 56, 272, 3-20 (로마서 강의)

10) WA 39 I, 83f. (Disputation de iustificatione, 1536)

4. 은혜와 루터

앞서 언급한 신앙과 성경은 은혜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다. 그래서 신앙은 있는데 성경을 모른다거나, 성경은 있는데,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의 증거를 성경 속에서 발견한다. 그런데 마음에 느끼는 것은 이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루터가 발한 <이신칭의>를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이다.

사실 루터 칭의론의 바탕에는 속죄론이 자리 잡고 있다. 루터의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 역시 속죄와 칭의가 연결되어있다.¹¹⁾ 따라서 자기의 죄를 씻는 문제 역시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이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중형태로 인간에게 다가온다고 하면서 “성경과 신학의 인식은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별하는 데 달려있다.”고 말하였다.¹²⁾ 이 말을 환언하면 인간의 공로(율법준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복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인간이 선을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까닭은 “공적이나 선행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만족한다.”¹³⁾는 것이다.

루터 시대 중세 가톨릭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요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가르쳤다. 즉, 인간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루터는 이에 반대하였다. 만일 선행이 그 대가를 바라거나, 공적



을 쌓는 일이라면 그 선행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은총과 무관한 선행은 기도와 금식과 복종과 인내와 정절과 순결을 겸하여 하는 선행이라고 하여도 우상숭배일 뿐이다.¹⁴⁾

루터가 보기에 율법수행을 통해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확신하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여유가 없다. 이들은 “율법의 행위(Opera legis)는 행하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Voluntates legis)은 행하지 않는”¹⁵⁾ 자들이다. 따라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Facit quod in se est) 의롭게 되거나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루터의 주장은 율법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획득하겠다

11) 홍지훈, 『마르틴 루터의 속죄론』, 『한국교회사학회지』 21집, 2007년, 295-318을 참고하시오.

12) WA 7, 502, 34.(마태 11장 설교 1521)

13) WA 6, 207, 26-30

14) WA 6, 210, 10ff

15) WA 56, 264, 34

는 중세 후기의 신념을 무너뜨린다.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값없이 용서하시지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¹⁶⁾ 하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하여 은혜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은 죄에 죄를 더하여 이중으로 죄를 짓는 것”라는 표현을 통하여 루터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할 것을 요구한다.¹⁷⁾

5. 나가는 말 : 복음적 신앙

마르틴 루터 신학은 우리 한국교회에게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신학이다. 우리는 루터의 개혁의 원칙을 <오직 신앙>,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라는 세 가지 용어로 종종 설명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칙은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 없는 신앙>이나 <은혜 없는 신앙>은 미완성의 신앙이라는 뜻이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혼동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성경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복음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뜻이다. <복음적인 신앙>이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듯이,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죄와 벌의 공포는 우리 속에서 희망으로 변화하게 된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교회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Um Gottes Gottheit) 신학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를 신앙의 길로 부른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루터는 신앙을 정의한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일이다.¹⁸⁾

루터의 칭의론 탐구를 통하여 찾아야 할 우리 시대 한국교회를 향한 교훈은 “예수 시대이건 루터 시대이건 본질과 비본질 또는 내적정신과 외적의식 사이의 대립 사이에서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신앙의 본질과 본정신은 잊어버리고 껍데기의 신앙과 외적의식의 포로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개혁정신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한국교회 오늘의 모습을 진단하고 평가해 보는 일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떠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의 외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요즘에는 막대한 외적 팽창만큼이나 내적으로도 성숙하였는지를 반문하는 일이 교회의 내부와 외부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루터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축복과 영광 같은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만을 가르쳐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신학>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하는 때가 도래하였다는 뜻이다. **EM**

16) WA 1, 245, 22-23. (Ein Sermon von Ablass und Gnade, 1518)

17) WA 1, 360, 35f

18) WA 17 II, 73 (1525년의 설교집)